



배포일자 : 2026년 9월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로보티즈 · LG사이언스파크 산업현장 방문

- 자율주행 배달로봇부터 AI·디지털 전환까지..소상공인·소공인 현장 적용방안 모색
- 오세희 위원장 “첨단기술,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연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28일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와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소공인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찾아 상반신 로봇 'AI WORKER',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 휴머노이드 'AI SAPIENS' 등의 시연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을 중심으로 배달·서비스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특히 배달비가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 부담으로 꼽히는 만큼,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와 가격 경쟁력, 초기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어 LG사이언스파크에서는 간담회를 갖고 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둘러보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봤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골목상권과 제조 소공인이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오랜 기간 우리 제조업의 기반을 지탱해 온 소공인의 숙련기술과 현장 경험에 AI·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선도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확산할 수 있

도록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산업과 생활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소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먼 기술인 것도 현실”이라며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로봇과 스마트 기술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급·스마트화 지원을 확대하고, 선도기업과 소상공인·소공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오세희 위원장을 비롯해 로보티즈 이선영 부사장, LG전자 윤대식 전무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별첨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로보티즈·LG사이언스파크 산업현장 방문 사진